

아동도서 출판인이 해야 할 일

曹大鉉

아동문학가

최근 아동도서에 손을 대는 출판사들이 많아졌다. 개중에는 새로 출범하면서 아동물을 전문으로 표방하고 나선 출판사도 있고, 성인물을 내던 출판사가 그 여력을 몰아 아동물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도 있다. 아동도서 시장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출판사가 늘어나는 그만큼 수준 높고 다양한 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를 환영했으면 했지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출판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상품(아동도서)의 질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최근 우리나라 아동도서 출판계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분명 출판사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만 있으니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출판인들이 아동도서를 내는 데 대한 투철한 자각이나 신념이 없이 상업주의적인 수치타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책을 만드느냐 하는 판매전략에만 초점을 맞추어 경쟁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는 늘어났어도 아동도서 出版史에 길이 남을 참신한 기획을 찾기가 어렵고 유사 모방물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범람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적어도 아동도서에 손을 대려는 출판인이라면 다음 두가지 기본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는 준교육자적인 양식이다. 아동도서는 그 독자가 인생이나 삶의 방법을 처음 배워나가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思考의 내용이 지극히 건전하고 창의적이며 순수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은 정확한 것이라야 하며, 표현은 심미적으로 우아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에게 올바른 품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건전한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길들여진 독서태도가 자라서도 평생 독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계도적인 측면에서도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책을 내겠다는 최소한의 양식도 없이 무턱대고 아동도서 출판에 뛰어들다는 것은 기왕에 오염된 물 위에 다시 썩은 물 한 바가지를 덧붓는 격박에 되지 않는다. 아동도서 출판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는 출판의 성격과 방향을 뚜렷이 설정하는 일이다. 말이 간단해서 '아동도서' 지 아동들이 읽고 싶어하고 또 읽어야 할 분야는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의식이 없이 아동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잡동사니 식의 책을 남발해온 것이 우리 아동도서 출판계의 관행이었다. 그것도 시류에 따라 잘 팔릴 목록만 경쟁적으로 출판해왔기 때문에, 도서의 양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 분야별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지극히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연령별 구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아동도서 출판이 사회전체의 문화적 후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왔다면 이제부터 출범하는 아동도서 출판사만이라도 분야별 단계별 전문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그리고 유아용이면 유아용, 저학년용이면 저학년용 등 출판사마다 분야별 단계별 성격을 뚜렷이 하고 그 방면의 노하우를 깊이 있게 축적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아동도서 출판계의 고질인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을 없애는 길인 동시에, 각개 출판사가 오래 사는 길이다.

이와 같은 전문화 체제 속에서 각개 출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남이 손댈 수 없는 독창적인 기획품을 개발해 낼 때 우리의 아동도서도 국제적으로 어깨를 겨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뉴스	2	제12회 한국어린이도서상 시상식·외
초점	4	아동도서출판, '단행본시대' 다가온다 전집물 중심 시장구조에 지각변동 조짐
자료	6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까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
화제	9	어린이 전용서점 '초방'
서평	10	서경수 「불교철학의 한국적 전개」 - 목정배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 김형기
	11	발리에르 「정치경제학입문」 - 강남훈 안재성 「사랑의 조건」 - 신승엽
저자인터뷰	12	「國外韓人사회와 민족운동」 낸 윤병석교수
	13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낸 강만길교수
	14	「한국의 도자기」 낸 정양모씨
	15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낸 임재해교수
지상중계	16	전국도서관인 큰모임 학술대회 후기산업사회와 도서관의 역할 - 현승중 국립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언 - 정필모 변화된 시대와 도서관인의 사명 - 최성진 도서관재정 확충방안 - 손정표 공공도서관 행정의 효율화 - 이용남
얼굴	19	정희천 국립중앙도서관장
리뷰	20	도서관 '개인문고' 어떤 것들 있나 국립중앙도서관 및 몇몇 대학도서관이 중심
출판화제	22	보이지 않는 '통일'을 짚는다 17인의 경의선 사진작업 「분단풍경」
나의첫책	23	이제는 계면책은 옛이야기 - 유중호 첫 평론집 「비순수의 선언」을 냈을 무렵
문학시론	24	여성해방과 현실변혁의 문학이론 - 조남현 페미니즘문학론의 오늘과 내일
해외화제	26	도서관 규모의 미국 대형서점·외 - 이봉호
세계의 출판	28	여성적 입장에서의 여성사 해석·외
	30	독자서평
	32	신간안내
	40	200자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